

## 교회소식

## 주님의 교회 20주년 기념 사진전



주님의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진전이 10월 12일부터 3주간 지하 소식당에서 열린다. '주님의 계신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의 세계를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출품자들은 작품을 준비하며 작품 한점 한점에 영감을 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겸허함을 알았다 한다. 이 전시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사진 동우회에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바란다고 서정하 집사는 전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병원사역팀 서울의료원교회 예배사역)

주님의교회 병원사역팀에서는 매월 둘째 주일 서울의료원교회 주일예배 봉사

사역을 한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층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휠체어 봉사자들은 미리 병실에서 들러 휠체어로 예배 처소까지 이동하며 예배 진행을 도우며 찬양팀은 준비 찬송과 특송을 부르며 환자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전한다.

기도를 통해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보호자들의 피곤까지도 덜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진정 선한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며 환자와 동행한 보호자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임경수 집사는 주일예배 후 짧은 특송 연습의 부족함을 느껴 토요일 오후 2시간의 연습을 통하여서도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랬다.



## 세례예식



세례예식이 10월 12일 오후 4시에 중예 배실에서 박원호 담임 목사의 집례로 63명이 세례를 받고 6명이 입교를 하였다. 잔잔한 바이올린 음률 속에 세례예식을 시작 했다. 두 분 교우의 간증에 이어 세례교육 동영상을 보며 교육 중에 받은 은혜를 떠올렸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세례를 받는 날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뻐하며 온 교우들이 감사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귀한 날이라 했다.

75세에 세례를 받은 금동팔 교우는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길을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기에 끝림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 다름으로 인해 다름에 이르게 되다며 가정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노력할 때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mbti 검사 뿐만 아니라, 예비부부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와 선물을 낭독하는 등 시종 일관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최사라 기자

## 강아지돌 어린이도서관에서 온 편지

주님의교회 교우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크는 도서관, 강아지돌 어린이도서관입니다.

2006년 10월19일에 설립되어 대전시 동구 대성동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좋은책을 보급하며 어린 친구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교육과 문화에 소외된 지역인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은 주님의교회로부터 매달 후원받는 지원비로 도서관운동을 꾸려오고 있으며 매달 신간도서를 보급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학때는 매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빔 프로젝트도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비된 좋은 책들로 인해 인근 유치원에서는 매주 정해진 날에 원생들이 찾아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는 도서관이지만 대전의 작은 마을, 대성동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는데 삶의 좋은 거름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교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주님의 사역에 작은역할을 해주셨음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아지돌 어린이도서관 자원문의:  
복지선교부 기관교팀

신형섭 기자

## 하나됨으로 다가서기-결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 두번째 교육이 지난 22일 주님의교회 1층 제3집회실에서 열렸다.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총 3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결혼예비학교에는 예비 부부 9쌍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비 부부들의 mbti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다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김희주(청년부 9기) 씨는 "다음달에 있을 결혼준비로 몇개월이나 분주하게 보내고 있던 때에, 교회에서 결혼예비학교를 열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희주 씨는 "결혼을 앞두고 빠빠한 일정 속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때문지 않은 순수함과

## 고귀함을 가진 모습



10월 19일(주일) 오후 3시에 스타디움 볼링장에서 장애인 친선 볼링대회가 열렸다.

청각장애우들과 지체부자유 장애우들이 봉사자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휠체어를 타고 볼을 던질때 손목의 힘이 약해 볼이 힘차게

구르지는 못했지만 볼이 핀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볼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신기함과 즐거움에 손을 마주치며 좋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맑고 깨끗한 모습과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보았다.

자신이 던진 볼을 보며 즐거

워 하던 장애우 교우는 예전에 볼링장을 가는 것 꿈도 꾸보지 못했는데 몇 번 볼을 던져보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내년에는 봄과 가을에 한번씩 이런 귀한 기회를 열었으면 바랬다.

신형섭 기자

## |오늘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1

통 권 제 238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10월 26일

#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2008.10.12 국화꽃이 핀 가을 성도들이 예배후 교제하는 모습 <촬영. 서정하 집사>

##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_ 시편 133:1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답다. | 저만치 홀로 있을 때보다 | 모여 있어서 더 아름답다. |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함께 섞여서 더 아름답다. |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 사랑하기에 더 아름답다. |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 마음이기에 더 아름답다. 높은 하늘 아래 | 낮은 마음이기에 더 아름답다. | 화목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 아버지의 기쁨이 있기에 더 아름답다. 엄혜숙 기자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C.Y.A)  
개원예식

2009,  
교회의 청소년사역을 위한  
정책세미나

2008년 10월 27일 (월) am9:30~pm7:00 주님의교회 중예배실

|               |    |
|---------------|----|
| 담임목사 주일설교     | 2면 |
|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 3면 |
| 결혼예비학교        | 4면 |
| 장애인 볼링대회      | 4면 |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히 알려진 본문입니다. 한번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때 주님께서는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다 와가는 때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오르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군병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극구 칭찬하셨고, 그리고 하인은 그 시로 나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나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의 모습에는 무엇보다 유대교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존경하듯 유대인 장로들 또한 이 분을 깊이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조금도 정치적인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나아가서 죽어가는 자기 종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분이 결코 예삿 분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이 분이 얼마든지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까닭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지금 백부장의 말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없고 자기도 주님을 뵈 수 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한편에서는 합당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감당치 못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백부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한 행동이 무엇이고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마태복음 18:21-35

도 칭찬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제게 여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큰 소망도 당신처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교인들 모두의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들려준 이야기

저는 로마의 백부장 막시무스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 가운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당시 어느 나라에 가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머무는 동안 상당한 권한과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종들도 여럿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저는 유대에 도착하자 말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는 말도 들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고 메시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을 지은 창조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데리고 있었던 늙은 종이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 무엇이 백부장의 믿음인지를 아시겠습니까?
- 이제야 주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가 순종할 생명의 말씀임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파견된 백부장은 로마에서도 뛰어난 사람 가운데 뽑혔습니다. 워낙 유대인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많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항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에는 여러 종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의 정책을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태양력을 따르지 않았고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에 안식했고 자녀들도 자기를 나뉠대로 키웠습니다. 로마 정부로서는 이들이 여간 폐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가면 다른 종교들도 다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일차적 이유는 이들의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높은 차원의 도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생명에 대한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생명 속에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한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제가 무척 사랑하는 종입니다. 이 때 제게 순식간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회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저와 교제하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최대한의 예수를 갖추어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날 때 곧 바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늙은 종 그냥 버려버리면 되지. 그리고 젊은 종으로 바꾸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느냐고? 저는 예수의 태도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지가 궁금했습니다. 설마 예수가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오시겠는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가 장로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때부터 저의 심장은 감당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의 발자국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분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던 순간 만약에 저 분이 신이라면 생명을 지은 신이라면 이 생각이 들어오자 전달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저 분이 생명을 지은 신이라면 저는 저 분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야할 사람은 종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서둘러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는 제가 오라고 부탁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순종할 분입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로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자 종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분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에는 그 분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그 분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로마 백부장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오늘 우리는 로마의 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만이 내가 순종할 생명의 말씀임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예수가 와서 그 말을 들어주어 야할 만큼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

“내가 여호와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편40:1-2)”

얼마 전 신문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국내 경제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실감나게 표현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주책구입을 위한 은행대출, 노후대비를 위해 채입했다 망가진 펀드,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등 떠밀린 기러기 아빠. 이밖에도 환율폭등으로 인한 키코(KIKO)를 가입한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 등 이번 금융위기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주력산업의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데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수출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침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여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 또한 높기에 국민들의 걱정과 답답함은 날날 늘어만 갑니다. 거대한 금융위기 속에서 가정, 기업의 경제기반이 흔들리자 그로 인해 장래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 때문에 또 하나의 ‘정신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나에게 많은 것들이 ‘없어’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나의 많은 ‘있음’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1. 먼저 자신 스스로의 변화, 개인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먼저 심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의지하고 따르며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힘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세상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요 특권임을 알아야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처한 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막연히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케 하여 선을 이루시는(롬8:28)’ 주님이기에 환난 속의 그 분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은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나에게 많은 것들이 ‘없어’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나의 많은 ‘있음’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바라볼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욥의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2. 무엇보다 함께 더불어 변화하는 신앙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들은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내가 살 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공동체이며, 오히려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통해 주님을 알리고 주님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려야 합니다. 물질만능주의, 무한이기주의, 세상의 탐욕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소그룹 사역과 봉사으로써 더불어 변화할 수 있습니

다. ▶소그룹 사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여유로운 정신적 교감을 할 수 있고, 말씀 나눔을 통해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중보기도를 한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심적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활동, 또는 주방 봉사, 주차 봉사 등의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변화 받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봉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작은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적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 후 얻는 마음의 풍성함은 모든 두려움과 정신적·심리적 빈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위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하고 풀어야 하지만 이것이 꼭 교회라는 큰 규모로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인 나 자신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바라볼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욥의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채지민 기자

구약소그룹 집중 탐구 ③

작은 것이 아름답다



www

미국의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아래서 유일한, 또 최선의 조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사회의 구조에서 성장한 구조가 미래사회에서도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대 자체가 글썽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미래사회의 특징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력관리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은 했지만 ‘깊이’ 없는 성장’과 ‘제자도의 결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를 작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내의 작은 그룹을 많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유연하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의 구조는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은 소그룹 만들기의 원조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람을 네 사람씩 세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많지도 않은 열두 제자를 다 시 세 그룹으로 나누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다 포용하려는 의도이며, 둘째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소그룹 만들기 목회였습니

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작게만 드셔서 책임있게 전도하게 하시고 알뜰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선호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도 예수님의 인력조직의 기본인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작은 그룹을 통하여 큰 교회를 이루는 정보사회에 대응한 목회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이강찬 목사